

<PRNewswire>DMCC '무역의 미래' 보고서, 디지털화로 3.5억 개 업체들이 수출을 개시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고

- DMCC 선구적 보고서, 국제 무역의 디지털 혁명에 관한 결과 보여줘
- DMCC IDI 따르면, 전 세계 업체들 중 42%가 완전한 디지털화 이뤄

(런던 2016년 3월 17일 PRNewswire=연합뉴스) 무역 및 기업을 위한 세계 굴지의 상품 허브 중 하나인 DMCC가 발표한 첫 '무역의 미래(Future of Trade)' [http://www.futureoftrade.ae/]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들이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채택한다면 최대 3.5억 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처음으로 재화 수출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85351-DMCC-new-exporters-future-of-trade/>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무역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보고, 5개 대륙 150명의 전문가들이 12개월 동안 공유한 통찰을 소개한다. '무역의 미래(Future of Trade)' [http://www.futureoftrade.ae/] 보고서는 DMCC가 Futureagenda.org 및 영국의 주요 경제 컨설턴트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Cebr)와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놀라운 결론은 디지털화의 규모와 디지털화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다. DMCC의 조사에 따르면, 상점이 완전한 디지털화를 단행할 경우 재화를 수출하는 업체 수가 6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처음으로 국제 수출 거래를 하는 업체의 수가 1억~3.5억에 달할 전망이라는 뜻이다.

DMCC CEO Gautam Sashittal은 "이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하다"라며 "오늘날 어려운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견고한 디지털 전략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사고를 하며,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무역 업계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 모두 확실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MCC와 Cebr는 보고서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리 및 부문별로 변화의 정도를 추적하는 업계 디지털화 지수(Industry Digitalisation Index, IDI)를 설정했다. 이 지수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국제 무역의 디지털 진전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IDI에 따르면, 오늘날 전체 업체들 중 42%가 완전한 디지털화를 이뤘다고 한다.

DMCC는 1만 1천 500개가 넘는 업체들을 포괄하며, 특히 상품 부문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DMCC와 두바이는 무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Futureagenda.org와 Cebr의 최적의 파트너다.

DMCC 회장 Ahmed Bin Sulayem은 "두바이는 수 세기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무역로의 중심지였다"라며 "DMCC의 '무역의 미래(Future of Trade)' [http://www.futureoftrade.ae/] 같은 연구는 새로운 기술과 증가하는 국제 연결성으로 무역로 균형이 재정비되는 시점에서 업체들을 위한 실천 가능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314/343836>)

미디어 문의:
Henriette Svensen

DMCC

이메일: pr@dmcc.ae

전화: +971-56-216-3031

출처: DMCC